노동장관, 외국인노동자 작업복·겨울옷 나눔행사 참석

김영훈 장관, 전남 진도서 노사민정사업 참석

"노동 존중은 하나… 다름은 차별 이유 아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오후 전남 진도군에서 열린 '외국인노동자 작업복 및 겨울옷 나눔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노동부의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행사를 주관한 전남노동인권센터는 최근 증가하는 지역 내 외국인노동자들이 겨울옷과 작업복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자 연초부터 지역 내 주요 기업과 주민, 전국의 노동·시민사회단체에서 이를 기부받았다.

김 장관은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직접 겨울옷과 작업복을 전달했다. 이날 참석한 전남지역 외국인노동자들은 1500여명이었다.

김 장관은 "옷 한 벌, 물품 하나하나에는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려는 마음'이 담겨있다"며 "국적과 언어가 달라도 노동을 존중하는 마음은 하나이며 다름은 차별의 이유가 아니라 함께 사는 세상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힘"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모든 외국인노동자가 차별없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시민단체 등과의 연대와 협력을 한층 강화해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노동부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일터뿐 아니라 생활 전반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노동 인식개선 캠페인, 주거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식개선 캠페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외국인노동자 이름부르기 캠페인'을 통해 10월부터 모든 고용허가제(E-9) 노동자들에게 모국어와 한국어가 병기된 명찰을 제공하고 있다. 노동부는 올해 약 1만명의 노동자에게 명찰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전북 완주군의 외국인 고용 농가를 방문해 외국인 노동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또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과 외국인노동자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오권철 기자

1천억 지원 받는 '글로컬대'… 7곳이 내년 의대 '지역인재전형' 축소

김문수 의원실, 교육부 '의대 지역인재전형' 자료 분석

교육부가 권고한 60% 미만 10곳… 절반은 글로컬대학

가톨릭관동대·연대 미래캠퍼스·한림대는 20%대 불과

"글로컬대학부터 모범 보여야… 교육부, 관리·감독해야"

내년도 의대 지역인재전형 모집 비율을 줄인 대학의 60%가 글로컬대학인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1000억원의 국비 지원을 받으며 지역과 대학의 혁신을 뒷받침해야 할 글로컬대학들이 정작 지역 의료 인재 양성에 소극적으로 나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6학년도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올해보다 줄인 12곳 중 7곳(58.3%)은 글로컬대학이다. 2024학년도보다 줄어든 2곳도 모두 글로컬대학이다.

교육부는 지방의대 지역인재 선발인원 비율을 60% 이상으로 권고하고 있지만 2026학년도 모집에서 정부 목표치에 미달하는 대학은 10곳이다. 이 가운데 5곳은 글로컬대학이다.

내년도 입시에서 교육부 권고보다 지역인재 모집인원 비중이 낮은 대학은 ▲가톨릭관동대(23.8%) ▲계명대(56.8%) ▲고신대(48.1%) ▲순천향대(44.3%) ▲연세대 미래캠퍼스(28.9%) ▲을지대(54.4%) ▲인제대(57.7%) ▲제주대(52.5%) ▲충남대(58.4%) ▲한림대(22.8%) 등이다.

가톨릭관동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한림대는 의대 지역인재 선발인원 비중이 20%대로 매우 저조했다.

순천향대, 인제대, 제주대, 충남대, 한림대의 경우 글로컬대학임에도 지역인재 모집인원 비율이 60%보다 낮았다. 단 순천향대, 제주대, 충남대의 경우 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대 대입전형 시행 계획 주요 사항을 공개한 올해 5월 이후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됐다.

한림대는 2023년에, 인제대는 지난해에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됐지만 정부 목표치보다 저조했다.

2026학년도의 지역인재전형 비율이 올해보다 줄어든 대학은 12곳으로 이 중 ▲건양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순천향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가 글로컬대학이다. 2024학년도보다 줄어든 2곳은 ▲동아대 ▲부산대로 모두 글로컬대학이다.

단, 비수도권 의대의 전체적인 지역인재전형 모집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다. 지방의대는 지역 정주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인재전형의 모집 인원 비율을 확대하고 있다. 2024학년도 49.5%이던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은 올해 59.7%까지 뛰었다. 내년도 입시에서는 59.0%로 올해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2024학년도에 비해서는 9.5%p(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김 의원은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이 정부 권고보다 낮은 대학, 작년보다 줄인 대학, 재작년보다 줄인 대학에 글로컬대학들이 포진해 있다"며 "지방대 살리기와 국가균형성장은 무조건 해야만 하는 시대다. 글로컬대학부터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에 남는 선순환에 모범을 보이도록 교육부가 각별히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방의대가 지역인재전형을 자발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지역인재전형 및 선발 현황 등의 추가 반영을 검토해 지원하겠다"고 국정감사 자료에 밝혔다. /뉴시스

광주에서 4번째 학교 폭발물 설치 신고… 긴급대피 소동

광주에서 또 "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학생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18일 광주시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12시 9분께 남구의 A중학교 운동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있어 소방과 경찰, 군부대 등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수백명의 학생과 교직원을 대피시킨 뒤 폭발물 탐지견 등을 동원해 일제 수색을 벌였으며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신고는 "폭발물을 설치해 놓았다"는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3일 오후에도 광주 북구 B고등학교와 남구 C·D고등학교 등 3곳에 '폭발물이 설치됐다.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메일이 잇따라 수신돼 이를 확인한 교직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경찰특공대 등이 출동해 현장 수색을 벌였으며 학생과 교직원 등이 대피했다.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된 수색 결과 폭발물 의심 물체가 발견되지 않아 경찰은 현장 통제를 해제했다.

경찰은 최근 국내 주요 시설물 관리부처에 발송된 일본발 협박 메일과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전민규 기자

☎062-525-9775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광주북구시설관리공단지회가 17일 오후 광주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11개월20일짜리 계약을 지적,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북구 시설공단 소속 비정규직 노조

"11개월20일 계약, 정규직 전환 회피"

광주 북구 시설관리공단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1개월20일의 계약기간을 문제삼으며 행정당국이 정규직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하며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광주북구시설관리공단지회는 17일 오후 광주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단은 비정규직 노동자 25명에게 6개월 또는 11개월20일짜리 계약을 반복하며 정규직 전환·퇴직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공단의 이러한 인력 운용은 노동자들을 매년 해고의 불안감에 시달리게 할 뿐만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들의 과중한 노동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 결과) 공단은 5개구 중 산재 사고가 가장 높은 곳이 됐다"고 주장했다.

또 "민간위탁업체 소속 정규직은 고용승계됐으나 기간제 노동자들은 배제됐다. 같은 일을 해온 노동자들 사이 노골적인 갈등과 차별이 만들어진 것은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의 취지를 훼손한 당국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단은 6개월 또는 11개월20일의 고용 계약을 당장 중단하고 상시·지속 업무 종사 비정규직들을 당장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공단 측은 한정된 예산 탓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기간이 11개월20일로 산정, 오해가 있다고 해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기간제 노동자들은 출산과 산재 등으로 불가피하게 현장에서 빠지게 된 정규직 노동자들의 업무를 대체하고 있다. 수거 인력 22명에 대해 투입할 수 있는 인건비가 한정돼 있어 고용 기간이 올해 기준 11개월20일로 산정됐다"며 "인건비는 현재 북구생활임금인 시간당 1만2930원으로 계산되고 있다. 더 많은 인건비 예산이 확보된다면 고용 기간을 늘릴 수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현근 기자

캄보디아 실종 공포… 광주 의료봉사, 이주민 행사도 취소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잇따르자 광주지역의 현지 의료봉사와 이주민 행사 계획이 취소됐다.

아시아희망나무는 23일 4박5일 일정으로 예정된 캄보디아 광주진료소 봉사 계획을 취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아시아희망나무는 캄퐁스프주에 위치한 광주진료소에서 11년째 2개월 마다 의료봉사를 해오고 있다. 이번에도 지난 8월 방문 이후 의료 봉사를 위해 의료진 5명과 출국할 예정이었다.

아시아희망나무는 광주진료소가 위치한 지역의 경우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로 범죄 단지가 집중돼 4단계(여행금지) 경보가 내려진 곳보다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봉사자 등의 안전 문제를 고려해 정부 지침에 따라 봉사 계획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광주 지역 캄보디아 이주민들이 매년 열던 추석 행사도 열리지 않는다. 19일 광산구 옥동2공원에서 캄보디아의 추석을 맞아 '프춤번' 행사가 열릴 예정이었다.

프춤번 행사에는 전통춤을 추는 등 명절 행사를 열 예정이었지만 자국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 문제가 불거지자 행사를 취소했다. /이승원 기자